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3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3기

제5강
4월 18일(화)
오후 7시-9시

실크로드와 디아스포라의 길: 동아시아의 이슬람 파고



강사: **이희수** 교수

튀르키예 이스탄불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탄불 마르마라 대학교 중세사학과에서 조교수로 강의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정년하고 현재는 성공회대 석좌교수 겸 계명대 특임교수로 있다. 2022년 제63회 한국출판문화상 대상 선정 저서인 <인류본사>를 비롯해 중동-오리엔트 역사와 이슬람문화에 관한 국내저서 98권, 외국어저서 12권, 번역서 12권을 출간했다.

실크로드는 인문과 물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전쟁, 기상이변, 정치적 변화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아스포라의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극과 애환의 디아스포라는 고대나 중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세기에 들어 강대국들에 의해 갈려지고 쪼개진 국민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반복되었다. 무엇보다 20세기 유라시아 대륙에는 제정 러시아의 붕괴와 소비에트 체제가 등장하면서 대규모의 강제 인구이동이 이루어졌다. 1917년 볼셰비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발과 함께 크림반도나 카잔 지역의 수많은 소수민족, 그 중에서도 타타르라 불리는 카잔 튀르크인 부르쥬아 계층들이 만주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주해 온다. 약 200명 규모의 카잔 튀르크인들 중심의 공동체는 1950년까지 약 30년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나름대로의 생존 공간을 마련하고 국제교역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튀르크 관습과 이슬람 문화를 부분적으로 한반도에 남겨놓았다. 그들의 증언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 등을 통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근대 디아스포라 역사를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한 연해주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비교해 설명해 본다.